

“광주·전남 공약,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광주 AI·군공항 이전·모빌리티 도시
전남 의대 신설·초광역 교통망 확충
지역 현안 해결·미래 발전 전략사업
새 정부 출범 이후 실현 의지 중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21대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된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최우선 국정과제 채택을 요구하는 광주·전남지역 여론이 비등하다.

광주·전남 대선 공약의 경우 20대 대선과 비교할 때 반복되는 현안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후보와 정당의 정책·공약이 허황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21대 대선은 변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갈망이 높은 만큼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이 새 정부 출범 단계에서부터 국정과제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광주지역 공약으로는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 ▲영산강, 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사업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 반영됐다.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데이터 집적, 데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제21대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된 지역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채택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광주 군공항 이전, 순천대·목포대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 출범식 모습.

〈광주매일신문DB〉

터 학습,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해 AI 기반 순환 경제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AI 초연 결시티를 구축하고 AX 실증벨리, AI 반도체 등과 함께 모빌리티산업, 반도체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실증하고 AI 기반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는 국가 주도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지속 지원 및 확산으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립문화시설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 5·18 민주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 광주 문화의 글로벌 기반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영산강, 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은 영산강 유역 물순환 체계 구축 및 시민 친화적 광주천 도심하천 생태 복원을,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 인

프라 구축은 초고자기장 연구를 통한 기업 지원 및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은 광주·전남·북 상생 발전과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첨단산업, 문화관광벨트, 광역교통망 등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밖에도 대선 공약에 미반영된 교육 창업·실증 도시 조성, 대·자·보 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서남권 글로벌 관광거점 육성 등도 적극 검토해 국정과제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초고령화·저출산 등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의 경우 미래 100년을 책임질 대전환을 위해서는 대선 공약으로 반영된 핵심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게 필수적이다.

전남 공약은 ▲도민 건강과 공공의료 개선 ▲여수 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통한 예코산단·탄소중립 목표 달성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 신재생 에너지 허브 건설 ▲미래 첨단전



락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북아 대표 관문 공항 육성과 초광역 교통망 확충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허브 조성 등이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이자 전남도가 대선 핵심과제 1호 사업으로 내건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이재명 후보의 전남 7대 핵심 공약에도 최우선 순위로 이름을 올리며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는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친환경·고부가 AI 산업으로 산업재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담았다.

신재생 에너지 허브 건설은 해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목포 RE100 전용 국가 그린산단 조성 등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을 통해 전남을 명실상부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는 해남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과 합평 미래모빌

리티 특화산단,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이 핵심이다. 규제 완화, 투자 인센티브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동북아 대표 관문 공항 육성은 세계적인 공항 인프라 구축,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초광역 교통망 확충은 고속도로·철도 등 총 44개 노선 신설을 통해 전남을 국가 성장 핵심축으로 도약하도록 만든다는 복안이다.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무안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해남 K-농업 리드 지역 특화 첨단농산업 플랫폼 조성 등을 통해 스마트 농수축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거점 조성의 경우 여수 세계 대표 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 순천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및 K-디즈니 조성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변은진·양서원 기자

김영록 지사 ‘투표 독려 1인 캠페인’ 주목

사전투표 전부터 본투표일까지 매일

5개市 순회하며 출근길 도민 만나

동·서부권 횡단 투표율 올리기 정성

김영록 전남지사가 6·3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일주일 동안 진행한 출근길 1인 캠페인에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김 지사는 1화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사전투표 직전인 지난달 28일부터 6월3일 본투표일까지 매일 전남 동·서부권을 횡단하며 투표율 올리기에 정성을 들였다.

일주일 간 이뤄진 김 지사의 투표 독려 캠페인 동선은 순천-목포-나주-순천-여수-광양-목포로 짜여졌다.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5개市(市)를 중심으로 출근길 도민들과 만나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순천 예코그라드호텔 사거리를 시작으로 29일 목포 미즈피아병원 앞, 30일 나주 혁신도시 한전KDN 맞은편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6월 들어서는 1일 오후 순천 아랫장을 찾아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가진 데 이어, 2일엔 오전 8시 여수 신동아아파트 삼거리 1인 캠페인·오후 광양 중마시장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대선 투표 당일인 3일에도 목포 포르모 사거리에서 파켓 캠페인에 나서는 등 투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도민들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김 지사의 1인 캠페인은 일과 시간이 아닌 오전 8시에 진행된 데다, 동·서부권을 오가는 강행군 속에 해당 지역 현장 소통 간담회 일정까지 소화하는 등 치밀한 일정으로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나주에서 캠페인을 한 뒤 오후엔 동부권으로 이동, 전남 섬

바다 크루즈 시범운항 출항식에 참석하고 경도지구 개발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2일에도 오전 여수 캠페인 이후 COP33 유치 관계자 간담회·여수산단 기업체 간담회를 소화한 뒤 오후에 광양 중마시장에서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투표는 힘이고, 희망이며 변화다.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더 위대한 전남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꼭 투표해줄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백(道伯)의 투표 참여에 대한 진정성은 실제 높은 투표율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전남지역 사전투표율은 56.50%로 전국 17개시·도 중 1위를 기록했고 본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율은 88.6%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 지사는 3일 오후 8시께 도청 북카페에서 도민들과 함께 대선 개표방송을 시청한 뒤 발표문을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목포 옥암동 사거리에서 도민과 차량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1인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통해 “민주주의 성지 전남도는 88.6%라는 놀라운 투표율로 전국을 이끌었다”며 “도민의 뜨거운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흔들리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도민의 강력한 염원과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투표 참여는 전남의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 표명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김재정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